



**터키, 관광업계 종사자에 백신 우선 접종**

터키 문화관광부는 관광업계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록제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 등록제는 '안전한 관광 인증'(Safe Tourism Certification)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업계 종사자가 백신을 우선 접종한 뒤 해당 관광 시설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 사실을 플랫폼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터키 문화관광부는 8천 곳 이상의 관광 관련 시설이 안전한 관광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괌정부관광청 "5월부터 괌 여행 재개 목표"**

괌정부관광청은 오는 5월 1일을 괌 여행 재개 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괌 정부관광청에 따르면 5월 1일까지 괌 성인 인구의 50%(약 6만2천500명)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격리 없이 괌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청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와 괌 사이에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을 설정해 한국 관광객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국내에서 의무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괌정부관광청 한국사무소 박지훈 부장은 "괌정부관광청은 한국 정부와 트래블 버블을 통해 자유롭게 오가며 여행과 일상의 즐거움을 찾게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사바관광청, 블로그에 지역음식 소개**

말레이시아 사바관광청은 한국인 입맛에 맞는 코타키나발루 지역의 음식 몇 가지를 관광청 공식블로그(blog.naver.com/sabahtourism)에 소개했다. 사바관광청은 우선 말레이시아 13개 주의 '판면' 가운데 한국의 칼국수나 수제비와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바지역의 판면을 소개했다. 판면은 기호에 따라 고명으로 튀긴 덩펄링과 새우, 돼지고기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 또 코코넛 밀크와 판단 잎을 넣어 지은 밥과 매콤한 고추장 같은 삼발 소스에 땅콩, 튀긴 밀치, 삶은 달걀과 닭튀김 혹은 nona 소스로 만든 해산물을 곁들여 먹는 전통 음식 '나시르막'을 소개했다.



**홍콩에 '미술관 이상의 미술관' M+ 뮤지엄 완공**

홍콩관광청은 컨템포러리 비주얼 문화 전시장인 M+ 뮤지엄이 완공됐다고 밝혔다. '미술관 이상의 미술관'이라는 뜻으로 M+ 뮤지엄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전시장은 홍콩 주룽반도에 약 2만평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33개의 갤러리와 3개의 극장, 미디어테크, 리서치센터, 레스토랑, 바 등을 갖추고 있다. 홍콩관광청 관계자는 "올해 말 일반 공개를 앞두고 8천여 개의 작품이 설치되고 있다"면서 "20~21세기의 예술, 디자인, 건축 그리고 영상들을 담아 독특하고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건축 및 문화 아이콘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랑풍선, 다양한 체험 위은 제주여행 기획전**

노랑풍선은 봄을 맞아 '심포가 있는 자유여행'과 '안전한 다이내믹 패키지' 두 가지 주제로 '특별한 제주여행' 기획전을 마련했다. 한 곳에서 쉬는 자유여행객을 위한 제주에어카텔 3일 상품에는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 숙박과 조식 2회, 호텔 디너 1회가 포함돼 있다. 주요 관광지를 가이드와 동행하는 '제주버스패키지 3일' 상품도 있다.

**참좋은여행 "코로나가 망친 해외 허니문 이제 가세요"**

참좋은여행은 코로나19 기간 중 결혼식을 올렸으나 신혼여행을 제대로 가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 만의 신혼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2만 쌍이 대상이며, 괌, 하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인기 허니문 휴양지를 포함한 23개의 상품을 1인당 1만원의 예약금만 내면 예약할 수 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모두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로 신혼여행을 다시 가자는 약속을 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런 상품을 내놓게 됐다"면서 "양국의 의무격리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차액을 내고 날짜 등을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호텔  
리조트  
항공



소노호텔&리조트, 와인 투어 운영

소노호텔&리조트는 올해부터 '소노 와인너리 투어'(Sono Winery Tour)를 전국 17개 지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노호텔&리조트는 이와 함께 '소노 와인너리 투어 패키지' 판매도 시작한다. 소노 와인너리 투어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호텔과 리조트 내·외부 공간에서 소믈리에가 직접 고른 프리미엄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콘텐츠다.



청주거점 에어로케이 제주노선 취항  
하루 왕복 3회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가 4월부터 공식 취항했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 들어온 1호기(에어버스 A320-180석 규모)로 청주~제주 노선을 하루 왕복 3회 운항한다. 에어로케이는 공식 취항에 앞서 지난달 말 하루 왕복 2회씩 청주~제주 부정기편 항공권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사전탑승 이벤트도 열었다.

하와이안항공, 한국 승객 사전 등록 프로그램 도입

하와이안항공은 한국 출발 승객들에게도 '사전 등록 프로그램'(Pre-Clear Program)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전 등록 프로그램은 하와이로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하와이 의무격리 면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 검수해 하와이 입국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적용됐다. 인천과 호놀룰루 간의 직항노선은 최근 늘어난 수요에 맞춰 4월부터는 주 2회로 증편됐다.



'5성 호텔에서 한 달 살기' 롯데호텔, 장기투숙 상품 출시

롯데호텔은 장기 투숙 상품인 '원스 인 어 라이프'를 출시했다. 롯데호텔 서울 메인타워에서 장기 투숙하는 것으로, 서울 시내 5성급 특급호텔에서 이 같은 상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상품은 14박 250만원, 30박 34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객은 객실 청소는 물론 셔츠·속옷·양말 세탁 서비스와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피트니스, 수영장, 전자레인지 등이 마련된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전라북도도와 반려견 동반 숙소 발굴

에어비앤비는 한국관광공사와 전북 지역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눈치보지마시게 길'(반려견과 함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지자체는 남원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등이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펫스고트래블도 조인했다. 협약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전북 지역의 '눈치보지마시게 길' 인근 반려동물 동반 허용 에어비앤비 숙소 발굴은 물론 '반려동물 동반 체류형 관광코스개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반얀트리 톤프리로 '힐링 ASMR' 객실 패키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LG전자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소리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힐링 ASMR'(자율감각쾌락반응) 패키지를 운영한다. 패키지는 서울 남산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객실 1박과 함께 LG 톤프리 무선이어폰, 힐링사운드 앱 블림프(BLIMP) 연간 멤버십, 2인 조식권,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 무료 입장 혜택으로 구성된다. LG 톤프리는 LG전자가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인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와 협업해 만든 제품이다.